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실크로드여행사
불교성지순례 전문
02)720-9600

불교신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합시다
ARS 060-700-0048
불교신문 법보시 후원(한통당 5,000원)

1960년 1월 1일 창간 주2회 발행
불기 2559년 2월 4일 (2015년 / 단기 4348년 음력 12월16일)
i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3079호 수

'종단 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가 지난 1월28일 출범식 갖고 대장정을 시작했다. 사진은 대중공사 위원들이 "지혜와 마음을 모을 것"을 발원하며 석가모니불을 염송하는 모습.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새로운 100년 시작하는 첫걸음 딛었다"

'100인 대중공사' 출범
사부대중 매달 만나서
한국불교 미래 논한다

한국불교의 변화와 혁신을 모색하고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가 출범식을 갖고 1994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종단 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가 지난 1월28일 공주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대중공사에 참가한 사부대중 120여 명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공의를 모아가자고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았다.

100인 대중공사는 종단 역사상 최초로 사부대중이 참여해 불교의 미래를 열어가는 활로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해 종단 집행부 스님들과 교구본사 주지 스님, 중앙종회의원, 선원·율원·강원·비구니 스님,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학계, 신도포교단체 등 총 167명이 대중공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불교 내부 문제나 현안이 발생했을 때 대중공사가 열린 사례는 있었으나 종단 지도부부터 재가 불자까지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부대중 대중공사는 이번이 유일하다.

출범식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00인 대중공사를 개최하는 이유는 한국불교, 조계종단이 갖고 있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근원적으로 치유해 종도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불교로 거듭나기 위함"이라며 "모든 문제를 열린 광장으로 갖고 나와 사부대중과 대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대중공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 "실천할 수 있는 과제는 각급 종무기관에 적극 반영하고 입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입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공동추진위원장 지홍스님은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현대판 조계종 결집을 진행하고 있다. 조계종단의 공동체적 전통을 되살리고 있는 것"이라며 "종단이라는 공동체를 다시 살펴보고 설계하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오늘 이 자리가 1994년 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종단의 백년이 시작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공사에 참가한 사부대중은 "지혜와 원력을 모으는데 온 정성을 다할 것"을 발원하며 △매월 대중공사에 적극 동참할 것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할 것 △공동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지혜와 마음을 모을 것 △지위, 승속을 넘어 평등하게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출범식에 이어 대중공사는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와 종단의 현실에 대한 브리핑과 전체토론, 모둠토론,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모둠토론에서는 10개 모둠으로 조를 나눠 향후 대중공사에서 논의될 의제 선정을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관련기사 2~3면

공주=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무종교인들 불교 가장 좋아해

한국갤럽 2014년 보고서

'9세 이하' 신행활동 비중 커
어린이포교 중요성 일깨워줘

비종교인들이 가장 호감을 갖는 종교가 불교로 조사했다. 1984년부터 2014년까지 30년간 한국인들의 종교와 종교의식 변화를 비교한 한국갤럽이 2014년 진행한 '한국인의 종교 실태' 5차 조사결과 비종교인 호감종교는 불교-천주교-개신교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4년 4월17일부터 5월2일까지 3주간 제주지역을 제외한 만 19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종교를 가진 사람은 50%, 종교가 없는 이는 50%다. 이 가운데 종교가 없는 사람 742명 중 25%는 종교를 믿지 않는 것과 무관하게 불교에 가장 호감을 느낀다고 답했고, 천주교(18%) 개신교(10%)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고연령일수록 불교에 호감 간다는 응답이 많았고, 개신교는 전연령대에서 10% 가량 고른 분포를 보였다. 비종교인들 사이에서 불교의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는 10년 전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이다. 2004년 불교 호감도는 37%에 달했지만, 10년 뒤인 지난해는 25%로 줄어들었다. 다른 종교의 호감도가 10년 전과 크게 변함없는 것과 비교된다.

종교인들에게 현재의 종교를 몇 살 때부터 믿게 되었는지 물은 결과, '9세 이하'가 26%로 가장 많았고 '10대' 12%, '20대' 19%, '30대' 21%, '40대' 16%, '50세 이상'은 6%로 나타났다. '9세 이하'가 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어린시기에 접한 종교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역대 최대 '2015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종단-서울시 3월12일
행사 규모 '대폭 확대'

지난해 3월 6만5000여명이 운집하면서 출범 2년 만에 국내 최대 불교 관련 전시행사로 우뚝 솟은 불교박람회. 조계종이 주최하고 불교신문사와 불광출판사가 주관한 불교박람회가 올해는 서울시와 함께하며 명칭도 '서울국제불교박람회'로 변경하는 등 행사규모를 대폭 키워 눈길을 끌고 있다.

조계종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하는 '2015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오는 3월12일부터 15일까지 4일 동안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성황리에 펼쳐진다.

'살아있는 한국전통문화의 꽃'을 주제로 230여개 업체가 400개 부스를 마련해 사부대중에게 다양한 물품을 선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불교박람회를 관람할 당시 "불교박람회는 우리 문화유산을 많은 대중에게 알리고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광장"이라며 "박람회를 통해 불교문화가 민족유산으로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불교박람회에 동참하게 됐으며 명칭도 이 같이 변경하며 서울시를 대표한 문화행사로 발돋움할 초석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버스, 지하철, 구청 등 100여 곳에 전광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해 불자는 물론 일반시민의 참여가 대폭 늘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올해 처음으로 박람회에 동참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통문화우수상품전'을 진행해 총무원장상, 서울시장상 등 우수작 시상과 함께 '서울시 장인들과 함께 하는 기획전시'도 열어 행사의 공신력을 더욱 높였다.

또한 참가 업체들의 전시분야를 주거, 차, 다기, 예술과 문화상품, 수행과 사회활동, 문화서비스, 사찰음식 분야로 세분화해 관람객의 기호에 따라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외에도 템플스테이 특별전, 사찰음식대축제, 붓다아트페스티벌, 국제불교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눈여겨 볼만하다.

▶관련기사 14면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성전스님의
행복해지고 싶을 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꽃이 진 겨울 산사는 적요합니다. 하늘과 나목만이 정연한 산사를 거닐며 나는 문득 그 한 때 아름다웠던 꽃들의 자태를 떠올립니다. 저 나목 사이 한 송이 꽃이 피어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은 있음과 없음 그리고 시간을 뛰어 넘어 나를 서성이게 합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돌립니다. 이 겨울에 꽃을 그리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꽃의 계절은 지나갔고 지금은 마른 나목들이 서서 겨울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벅찬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만회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에 대하여 불행을 느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만회하지 못할 것이라면 무엇에 대하여 불행을 느껴 무엇 하겠는가?" 〈입보리행론〉을 읽다가 만난 구절입니다. 우리는 사실 불행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회할 수 있는 것이라면 만회하면 되는 것이고 만회할 수 없는 것이라면 잊으면 그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행해 합니다. 지나간 것을 지나간 대로 결코 놔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 때 투자했어야 하는데, 그 때 좀 더 열심히 공부했어야 하는데, 아, 그 때, 그 때…" 하지만 '그 때'는 봄 날의 꽃처럼 지금은 없는 때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때'를 벗어나지 못하고 일생을 두고 후회하고 괴로워합니다. 마치 만회할 수 없는 것을 후회하고 불행해 하면 다시 만회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처럼 그 때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집착은 언제나 불행을 낳을 뿐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그 때가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흘러간 물에 두 번 발을 담굴 수 없듯이 우리는 두 번 다시 그 시간대에 설 수 없습니다. 그 때에 대한 안타까움은 곧 불행이 되고 새로운 시작의 길을 지워버리게 됩니다. 내게도 물론 '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놔두려고 합니다. 나는 이제 그 때가 아니라 '지금'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해 염불암

'제2 불광운동'이란… 4면
재선충 확산 방지 만전 6면

성지순례의 名家
더존투어
■중남미, 아프리카, 발칸, 미주, 유럽, 러시아 전문
■셰도나 명상투어 전문
■중국, 인도, 동남아, 부탄, 티벳, 스리랑카 직영
02.738.7661

불기2559(2015)년 봄학기
선림원 7기 수행자 모집

도심에서 참선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참선전문 대학원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주지 원명 스님)는
참선 전문 수행기관인
선림원(禪林院) 7기를 모집합니다.

문의_ 조계사 선림원 02-768-8525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JOGYESA

선림원은

일반인을 위한 최상급 참선 수행기관 선림원(禪林院)은 1700년 역사의 한국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참선을 일반 시민들에게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조계사에 설립된 참선 수행기관입니다. 일반인들이 참선을 체계적으로 배워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진리를 깨친 고귀한 벗들과 함께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림원의 설립목적입니다.

이론과 실참이 병행된 최고위과정 선림원(禪林院)은 한국불교 최고의 대선사들을 증명법사 및 지도 수좌 스님들로 모시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림원 최고위과정은 학기마다 하나의 경전 및 선어록 연구를 통해 참선 이론을 공부하고 제방 선원장 스님에 의한 실참 수행을 체험합니다. 또한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선을 주제로 한 특강과 전통선원 탐방 및 중국 선종사찰 순례 그리고 미얀마 등의 세계주요명상센터를 탐방하는 프로그램도 병행합니다.

2015년 선림원 봄학기 신입생 모집 도심에서 참선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선림원에서 2015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산중 선원장 스님과 함께 선어록, 경전 등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직접 참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나십시오. 참선 수행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마음을 내셔서 선림원에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자격
- 일반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분
- 조계종 불교교양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 조계사 참선입문과정을 이수하신 분
※ 위 세가지 조건 가운데 한 가지를 갖추시면 됩니다.

모집일정
- 원서교부 : 조계사 불교대학 홈페이지(edu.jogyesa.kr)에서 선림원 클릭 후, 맨 아래에서 원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E-mail(jogyesa@daum.net) 접수 또는 방문접수 (선림원 담당_02-768-8525)
- 원서접수 : 2015. 1. 2.(금) ~ 2. 28.(토)
-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개별통지
- 등록금 : 45만원

수강일정
- 개강일 : 2015. 3. 5.(목) 오후 7시
- 강의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9시
- 장소 : 조계사 안심당 3층

선림원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참선대학원